

아! 고려불화... 영원한 美



○일본 경신사 소장의 '수월관음도'. 뛰어난 아름다움으로 14세기 동아시아 최고 미술품으로 꼽힌다.

시공사, 韓·美·日 유럽소장 133점 모아 책으로

“한민족 정신세계 불화로 재확인” 수월관음도등 40여점 국내 첫소개



가늘게 그려진 눈썹, 속눈썹은 말할 것도 없고, 한가닥 한가닥 먹선으로 치밀하게 묘사된 귀털, 그윽하면서도 부드러운 사선과 자그마한 입, 풍만한 얼굴, 금박과 수를 새겨놓은 화려한 천의(天衣)와 미풍에도 흔들릴 듯 살포시 걸쳐진 얇은 베일사이로 드러난 수월관음보살의 모습은 그 대로가 불교의 이상세계다.

수월관음보살을 찬찬히 바라보노라면 어느덧 마음의 눈이 또다른 세계를 향해 열리는 신비로운 전율을 느끼게 된다.

영원한 미(美)의 세계, 고려불화가 한자리에 모

“
금방 살아움직일듯
묘사 정교 필치 섬세
불교회화의 백미
”

였다. 종교적 예술적으로 그 뛰어난 가치를 인정 받고 있는 국내외의 고려불화 133점을 모두 모은 <고려시대의 불화>(1·2권)가 시공사(대표 전재국)에서 출간된 것이다.

1권은 도관권으로 국내에 소장하고 있는 12점과 일본에 전하고 있는 106점, 미국 유럽 17점 등 세계 각지에 소장되어 있는 고려불화 133점을 총망라했다. 불화를 여덟개 보살도 나한도 등 종류별로 나눠 정도(全圖)와 부분도를 담았다. 2권 해설권에는 작품해설과 참고자료, 한일 미술사학자들의 최근 불화 연구논문들을 수록해 놓았다.

이 가운데 일본 이즈미야 박물관(泉屋博古館) 소장 '수월관음도'와 조호손사(朝興孫子寺)의 지장보살도, 계암사(桂岩寺)의 아미타팔대보살도,

부동원(不動院)의 비로자나불도, 미국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아미타삼존도와 지장보살도 등 40여점은 국내에 처음 선보이는 작품이다.

한국미술연구소(소장 홍선표)가 기획한 이 책은 고려불화로 박사학위를 받은 경주대학 문화재학과 정우택 교수와 고려불화의 가치를 학술적 차원에서 규명하고 정립시킨 일본 규슈대 문학부 기쿠다케 준이치 교수가 공동으로 작업했다.

세계적으로 불화문화의 전통이 살아있는 나라는 한국과 티베트 뿐이다. 특히 불화는 불상이 표현하지 못하는 신앙의 세계를 보다 폭넓게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불화는 신앙의 대상으로서 또 교화의 방편으로서 불교의 원대한 가르침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종교적 신앙의 결정체다.

불화를 통해 깨달음의 세계에 도달하려는 불자들의 마음이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고려불화는 일본등 외국에 오히려 더 많이 존재해 불화중주국으로서 안타까움을 느끼게 한다. 우리것에 대한 소중함을 재확인하는 의미에서도 세계에 흩어진 우리 불화의 모든 것을 처음으로 집대성해 한권의 책으로 담아낸 <고려시대의 불화> 발간은 뜻깊다.



금방이라도 살아 움직일 듯 섬세한 필치와 정교한 묘사, 신비감마저 지어내는 화려하고도 조화로운 색채, 그리고 다양하고 개성적인 문양과 도상의 고려불화는 가장 화려하고 섬세한 아름다움을 마음껏 발휘한, 불교회화의 백미로 여겨진다. 고려불화는 우리민족의 정신세계의 표출이자 추구하고자 했던 궁극의 미(美)에 다름아니었다.

고려불화는 안료의 혼합을 최대한 절제해 색의 선명함을 극대화 시켰고, 세밀하게 그린 먹선의 표현기법과 불화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한 금박산의 표현들은 수백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도 그 생생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고려불화의 치밀성 장식성은 외관적이고 표현적인 느낌

‘고려시대의 불화’ 작업한 정우택 교수

10여년간 지구촌 불화찾기

<고려시대의 불화>를 작업한 경주대학 문화재학과 정우택(44)교수는 ‘고려불화’로 박사학위를 받은 이 분야의 권위자다.

정교수는 10여년간 일본 등지에 흩어져 있는 고려불화를 직접 찾아다니며 조사 연구했으며 지난 4년간 이 책의 편집에 심혈을 기울였다.

정교수는 “고려불화에 관한 화집은 그동안 한국과 일본에서 3종 정도가 출간된 바 있지만, 이들 모두 현존 고려불화의 50% 미만만을 수록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도관상태도 연구자료로 활용하기에 미진한 점이 많았다”면서 “고려불화집의 결정판인 이 책은 고려불화의 가치를 올바르게 규명하고 의의를 더욱 높이는 연구자료로서 그동안 텍스트 부재로 부진할 수 밖에 없었던 국내 고려불화 연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교수는 이번 불화집을 작업하는 과정에서 국



◇국내에 처음 소개된 미국 메트로폴리탄미술관 소장의 지장보살도

으로만 인식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화면구성을 위한 전체의 요소요소에 각각으로 심오한 표현과 절제의 오묘한 조화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고려불화의 아름다움은 결국 조화의 미이며 그것은 곧 한국인들의 미적감각이자 내밀한 정서였던 것이다.

수월관음도 가운데 일본 경신사(鏡心社)의 수월관음도, 일본 천은원(天恩院)의 비록해생경면상도, 호암미술관의 아미타 삼존불(국보 218호) 등은 뛰어난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특히 1310년 고려 화가 김우문이 그린 경신사 수월관음도는 가로 2.5m 세로 4.2m의 거대한 화폭에 그려진 관음상으로 뛰어난 화질과 아름다움으로 14세기 동아시아 최고 미술품으로 꼽힌다.

고려불화는 영산회상도, 아미타회상도, 화엄신중도, 관경변상도, 보살도, 나한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로 그려져 왔다. 그만큼 고려불화는 우리민족의 다양한 종교관, 우주관, 인생관을 내포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고려불화는 각각의 개별적인 모습속에서 ‘일즉다 다즉일(一即多 多即一)’의 여려한 세계를 보여준다. 마치 한 방울의 바닷물에서 드넓은 바다의 짠 맛을 알수 있는 것처럼, 개별적인 실체로서 존재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로 융통되는 세계, 그것이 바로 고려불화가 추구하는 깨달음의 세계인 것이다.



정교수는 특히 “서양화 위조감별 등에 사용되는 기술을 이용해 고려불화의 숨은 모습을 되살렸다”고 강조한다. 현미경 사진, X레이사진, 적외선 사진 등 첨단 과학기술을 동원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었던 부분까지 사실하게 복원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책의 해설권에는 ‘고려불화의 특성(기쿠다케 준이치, 규슈대 교수)’, ‘회암사상과 고려불화의 범주(이대세이 노스케, 도쿄 국립문화재연구소)’, ‘고려불화의 도상과 아름다움:그 표현과 기법(정우택)’, ‘고려불화의 관학적 조사(정우택)’, ‘고려불화의 관학적 조사(정우택)’ 등의 논문과 도판해설 외에 ‘고려불화의 명문’, ‘고려불화 문헌자료’, ‘고려시대 회화사연표’, ‘고려불화 논저목록’ 등의 자료도 수록해 있다.

<고려시대의 불화>는 오는 9월 일본어판 발간에 이어 영어판과 독일어판도 준비중이다.

이은지 기자

성보문화재연구원(원장 범하스님)이 지난해부터 간행하고 있는 <한국의 불화>시리즈 제3권 통도사 분말사편(下)과 제4, 5권인 해인사 분말사편(上·下), 그리고 제10권인 월정사 분말사편 등 4권을 출간했다.

‘한국의 불화’ 4권 출간

통도사·해인사·월정사편
성보문화재연구원 조사 편찬
조선불교 연구 중요 자료



적 가치가 높다.

조선시대 이후 사찰의 대응전이나 극락전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전각안에 거의 빠짐없이 봉안되는 중요한 불화인 신장탱화가 각 권마다 담겨져 있어 조선시대 불교신앙의 형태를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오는 2005년까지 전국의 사찰불화를 연차적으로 조사 편찬할 계획인 성보문화재연구원(원장 범하스님)은 국내외 박물관 및 개인이 소장한 고려불화에 대한 조사를 병행해 1차분(제1권~20권) 간행 완료와 함께 고려불화도 집대성할 계획이다. 또한 책으로 편집되는 모든 자료를 전산화 해 CD롬 제작도 준비하고 있다.

적공전 석가모니후불탱화(1729년)는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상부에 1백위가 넘는 화불과 26보살, 30여 존자, 사방천왕, 대방천왕, 제석천왕, 8대금강을 묘사해 뛰어난 불화로 평가받고 있다.

다양한 종교 세력의 세계를 인물의 표정과 자세 등을 통해 잘 묘사하고 있는 통도사 팔상도는 그 표현 기법과 양식적 특징이 단연 돋보이는 조선 후기 팔상도중 하나다. 산수화적 기법을 대담하게 수용하고 있는 통도사 팔상도는 중요한 부분마다 내용이 해에 도움이 되는 명문을 남기고 있어 자료